

# 인력으로는 못해

에세이

유순남  
수필가



‘농사를 지스다는 것이 온정신으로 해야 하는 일이며, 돈부 한나도 절서를 맞춰서 송귀야썸. 누가 갈쳐 줘서 안 것이 아니. 땅이 갈쳐’, ‘인력으로는 못해. 해님이 해주제’, ‘우리는 요런 것을 귀하게 봐. 공력을 덜여야 나오는 것인데’, ‘이 시상 살라문 누구나 다 애써. 애 쓰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전라도 닷컴> 남신희 편집장이 농촌 마을 고살을 다니면서 인터뷰하여 옮긴 글이다. 들일 하는 농부들이 무심코 한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 자연의 질서와 노동에서 터득한 것들이다. 수십 년 농사지어 자식들을 키워 낸 농부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알량한 농부지만 그래도 그들의 말에 공감은 할 수 있다.

작년에는 목했던 밭을 일구어 호박을 심었다. 밭 가장자리에 심어서 엉클을 밖으로 인도해 주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풀을 뽑아주었다. 엉클은 하나만 뽑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저기서 나온 엉클들이 밭 가운데에 심어놓은 콩농사를 망쳤다. 매년 호박을 심었지만 여태 늙은 호박은 한 덩이도 수확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랑게 익은 호박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인력으로는 못한다. 날씨 덕이다. 처음에 익은 것은 그즈음에 있었던 모임 회원들에게 나눠주었다. 다음에 수확한 것

은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수확한 것은 남구 로컬푸드에 상품으로 냈다. 진짜 농부가 된 기분이었다.

자연과 어우러져서 농사짓고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자연이 된다. 농사는 자연의 도움 없이 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도 자연에서 얻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은 언제 봐도 감동을 준다. 핏빛으로 움트는 새싹의 기대로 설레는 봄 산, 초록 초록한 여름 산, 더 말할 나위 없는 가을 산. 하지만 산이라는 자연에 눈이라는 옷을 입힌 겨울 산이야말로 최고의 걸작이다. 눈은 그 어떤 산도 모두 비경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설산에 구름이 넘나드는 산행길에서 구름 위를 걷고, 안개 눈 속에서 있을 때의 몽환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황홀감을 어떻게 인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지난달에 친구랑 영화<아바타 2(물의 길)>를 봤다. 기계문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지구인과 지구에서 먼 행성인 ‘판도라’의 원주민과 얽힌 인연과 전쟁 이야기다. 아바타는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족의 DNA에 지구 인간의 의식을 주입해서 만든 인공 육체다. 에너지 고갈 문제를 고민하던 지구인들은 대체에너지인 ‘언옵타늄’이 판도라의 지하에 엄청나게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판도라의 대기에 독성이 있어서 그곳에 적용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었다. 주인공 제이크는 아바타를 조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비 족이 사는 ‘숲의 나라’로 파견된다.

그는 나비 족과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그러다가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나비족의 족장 딸 네이티리와 사랑에 빠진다. 그 때문에 지구인과 나비족의 전쟁이 촉발되었다. 네이티리와 결혼해서 네명의 아이까지 둔 제이크는 인간의 무모함과 무자비함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는 나비족을 위협하는 인간들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바다의 나라’에 의탁하여 그곳에 적응해나간다. 하지만 인간들의 공격은 계속된다.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가족이 요새다”며 가족의 단결을 강조한다. 목숨을 건 결투 끝에 나비족은 고래와 물을 이용 기계문명을 파괴하고 승리한다. 미래의 지구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았다. 인력으로는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 듯 보이지만, 자연과 맞서 이긴 예는 없다.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한 벌로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 기온과 플라스틱의 위협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근이 시작됐다고 한다. 식량 해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었는데 큰일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에서 못살게 될 때를 대비해서 대체할 행성을 연구하고 있다. 지구의 자연 폭발로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는 환경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버리고 지구보다 못한 행성에 가서 사느니 차라리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社說

### ‘깜깜이’ 조합장 선거, 이제라도 바꾸자

#### 한달 앞 다가온 동시 선거

내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후보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표류로 이번 선거 또한 ‘깜깜이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불면 소리도 나온다.

6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광주와 전남은 20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8곳, 전남은 농·축협 140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 등 188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때맞춰 선관위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인 유권자 수가 적고 후보자와 각종 인연으로 얽혀 금품 수수 등 불법 선거를 근절하는 게 쉽지 않다. ‘깜깜이’로 치러지는

선거 제도도 문제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공개 토론도 할 수 없고 후보자 1인 외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후보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더욱이 지난 2019년 동시 선거 이후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꿀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나마 국회에 묶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농·수·축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쌀값 하락과 영농비 상승 같은 외부의 환경에서 조합의 사업 방향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후보자의 의지와 함께 유권자도 지역·학연·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공명선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라는 것은 정치권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2038 AG 유치 재점화... 신중한 접근을

#### 광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AG) 공동유치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양 지역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광주시의회가 6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유보했다. 광주시가 8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기반 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된 점과 공론화 부족 등이 상정 유보 이유였다. 시의회는 동의안 처리의 3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광주·대구 공동유치위원회 재구성 △충분한 공론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안전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단 시의회는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과 유치 활동 과정에서 예산 낭비

최소화 등과 같은 조건을 집행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는 200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국제 대회 유치인데다 유치 가능성과 성공 개최가 쉽지 않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가 2036 하계 올림픽 단독 개최를 선언하면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서울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불과 2년 뒤 AG까지 한국으로 가져오긴 힘들고 국가역량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의 결과다. 2038 AG 공동 유치가 광주시와 대구시의 상생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취지는 동일하면서도 서울-광주-대구 3개 지자체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힘을 모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첫 문문을 넘은 광주시는 의회의 동의안 의결 조건을 수용해 아시안게임 유치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타당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는 스포츠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메아 쉐아림 마을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과일 접시로 가득 찬 테이블 주위에 랍비들과 함께 모여 ‘나무의 새해’라는 의미의 ‘투 비슈vat’(Tu Bishvat)을 축하하고 있다.

예루살렘=AP/뉴시스

#### 서석대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절기에 따라 매년 그맘때가 되면 되풀이하는 전통민속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새해 첫 달인 정월에 들어있는 게 절반에 이르고, 거개가 대보름을 전후해 치러졌다. 달의 삭망주기를 보고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각별하게 여겨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풍속들을 지켜왔던 것이다.

추석과 함께 달이 가장 밝고 크게 뜨는 이 날은 전국 곳곳에서 태평을 밟고 액을 막는 갖가지 민속놀이와 풍속을 즐긴다. 대보름날은 선달 그믐처럼 수세(守歲)의 의미로 온 집안에 밤새 등불을 켜 놓았고, ‘상원절식’이라 하는 별식을 먹었다. 이 날이 되면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달집태우기를 했으며,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며 지신밟기를 했다. 또 액막이 연을 날리고 마을 어귀에 소대를 세우기도 했다.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럼을 먹거나, 귀 어두운 노인들에게 귀밝이술을 올리기도 했다.

불가(佛家)에서도 대개 이날 동안거(冬安居)를 해제하고 강과 바다로 나가 방생을 한다. 생명공경의 크나큰 자비행을 하는 것이다.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洞神)에게 드렸던 제사도 이 날 지낸다.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며 대보름날 서낭당, 산신당, 당산(堂山)에서 지내는 동제다.

어제 날짜로 발행된 신문에 정월 대보름날 이곳 저곳서 열리는 세시풍속 기사가 올라왔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진도 임회면 굴포마을에서 열리는 ‘굴포당제-고산 윤선도 선생 감사제’이다. 35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굴포당제는 마을의 평안을 바라는 동제 의식에 덧붙여 윤선도 선생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 후기, 해남윤씨가에서는 갯벌에 제방을 쌓아 농토를 만드는 해언전(海堰田) 조성에 진력했다. 고산은 농지가 좁아 늘 궁핍을 면치 못했던 진도 굴포로 들어와 방축을 쌓고 너른 논밭을 만들어 큰 도움을 줬던 것이다.

윤선도 선생이 기억되고 존경받는 이유는 인문학의 대가, 국문학의 비조로서만이 아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해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을 안타까워했던 고산의 자비와 애민사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젓빛 하늘 같은 세상이 갈수록 삭막하다. 대보름날 달집을 태우고 연을 날리며 품은 희망이 시대의 우울과 그늘까지 걷어낼수는 없을까.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